

나주시, 2025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연속 개최

시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 돋보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가을철을 맞아 축구, 줄넘기,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화합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5일 열린 읍면동 축구대회, 줄넘기대회, 파크골프대회에 이어 18일 게이트볼대회까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들은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읍면동 축구 동호인들의 '열정'

지난 15일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에서 읍면동 축구대회가 15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선수들은 뜨거운 응원 속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지역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윤병태 시장은 시축을 진행하며 "부상 없이 즐겁게 경기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유아부터 성인까지 즐기는 나주시장배 줄넘기대회

지난 15일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나주시장배 제2회 줄넘기대회가 개최됐다.

유아부터 청소년, 일반 시민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가했으며 가족 단위 참여

가 두드러져 생활체육의 접근성과 즐거움을 잘 보여줬다.

■ 영산강둔치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파크골프'

같은 날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는 시민 350여 명이 참가한 파크골프대회가 열려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파크골프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스포츠다.

윤병태 시장은 "남평파크골프장과 안장파크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실력을 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년층 대표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18일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 보조구장에서는 노년층의 대표적 생활 스포츠인 게이트볼대회가 치러졌다.

정교한 기술과 팀워크가 돋보이는 경기가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확대에 기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을철 나주시에서 연이어 열린 생활체육 대회가 시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체육 도시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지난 15일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에서 나주시시장배 읍면동 축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나주시시장배 제2회 줄넘기대회가 개최됐다.

화순군청 복싱부, 2025 월드 복싱 컵 파이널에서 메달 2개 획득

인도 뉴델리 2025 World Boxing Cup-Final에 국가대표 출전, 동메달 2개 성과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청 복싱부가 2025 World Boxing Cup Finals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청 복싱부 선수는 지난 11월 16

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5 World Boxing Cup Finals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박초롱(화순군청)선수는 여자-48kg급

에서 Minakshi Minakshi(인도)선수에게 석패했지만,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자 +90kg급 주대웅(화순군청)선수는

Mamasoliev Khalimjon(우즈베키스탄)선수를 상대로 치열한 경합 끝에 동메달 획득에 성공하여 화순군청 복싱부의 저력을 입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우리 군 소속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펼쳐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기량을 넓히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박찬호 농친 KIA, 두산 보호 선수 명단 받는다

보상선수 1명·박찬호 전년도 연봉 200% 선택 가능 보상선수 지명 안 하면 박찬호 전년도 연봉 300% 수령

주전 유격수 박찬호를 떠나 보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박찬호가 두산 베어스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으면서 보상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거머쥐었다.

박찬호는 18일 두산과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FA 계약을 맺었고, 이를 후인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 계약을 공식했다.

두산은 계약 승인 공시로부터 3일 이내에 보호 선수 명단을 박찬호의 전 소속팀 KIA에 전달해야 한다.

21일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은 이번 주말에 보호 선수 명단을 KIA에 전달한다.

KIA는 명단을 받은 뒤 3일 이내로 보호 선수 20인에서 제외된 1명을 보상 선수로 뽑아서 팀에 데려올 수 있다.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던 박찬호는 A등급이다. KIA는 박찬호를 영입한 두산으로부터 보상 선수 1명과 박찬호의 전년도 연봉 4억5000만원의 200%인 9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KIA는 보상 선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박찬호의 전년도 연봉 300%인 13억5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KIA는 보상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올해 8위로 추락하며 타이틀 방어에 실패한 KIA는 내년 반등을 위한 전력 보강이 절실하다.

KIA는 박찬호가 팀을 떠나면서 내야에 공백이 발생했다. 누군가 박찬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유격수로 이동하면, 다른 자리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

KIA는 19일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내야 전 포지션 수비가 가능한 이호연을 영입했으나 추가로 내야수를 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산 내야진에는 올해 좋은 활약을 펼친 안재석, 오명진, 박준수, 이유찬 등을 제외하고도 강승호, 박계범, 박지훈, 임종성, 여동건, 김동준, 김민혁 등이 있다.

KIA는 올해 불펜 투수들이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투수진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다.

올해 '투고타저' 현상이 뚜렷했음에도 KIA의 구원 평균자책점은 5.22로 10개 구단 중 9위였다.

KIA는 2022시즌이 끝난 뒤 LG 트윈스와 FA 계약을 체결했던 포수 박동원의 보상 선수로 사이드암 투수 김대유를 선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김대유는 이적 첫해인 2023년 41경기에서 2패 4홀드 평균자책점 5.11, 2024년 37경기에서 8홀드 평균자책점 8.28에 그쳤고, 올해는 15경기에 출장에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9.72로 부진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강백호 품은 한화, 노시환 다년 계약 눈독... '거포군단' 구축 시동

강백호, 한화와 4년 FA 계약 체결... 노시환과 좌우 거포 듀오로 기대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좌우 거포 듀오의 탄생을 알렸다. 올겨울 강백호 영입에 성공하며 장타력을 앞세운 타선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한화는 지난 20일 강백호와 4년 최대 100억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체결했다.

좌타 거포 강백호가 합류하면서 기존 간판타자이자 우타인 노시환과 함께 강력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중심타선을 꾸릴 수 있게 됐다.

강백호는 데뷔 직후부터 리그에서 손꼽히는 장타 자원으로 인정받았다.

2018년 KT 위즈 유니폼을 입고 나선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리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고, 데뷔 첫해부터 29홈런을 때리며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꾸준한 장타 생산 능력을 증명했다.

부상과 기록으로 잠시 주춤했던 시



강백호가 2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계몽

기도 있었지만 반등도 빨랐다.

지난해 26홈런으로 재도약한 그는 올해 95경기에 나서 15홈런을 기록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프로에서 8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03 136홈런 56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76의 꾸준함을 자랑한 그는

이제 한화 타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강백호까지 더한 한화의 눈길은 곧 바로 노시환에게로 향한다.

노시환은 내년 시즌에 큰 무리 없이 145일을 채울 경우 FA 자격을 얻는다. 한화는 노시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 FA 다년 계약을 노리고 있다. /뉴시스

삼성, 김대우 등 7명 추가 방출... 올 겨울에만 12명 정리

이상민·최상훈·안주형·공민규·김재형 방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베테랑 언더핸드 투수 김대우 등 7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삼성은 21일 "김대우를 포함해, 투수 이상민 최상훈, 포수 김민수, 내야수 안주형 공민규 김재형이 라이온즈 유니폼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달 투수 송은범, 내야수 강한울·오현석, 외야수 김태근·주한울 등 5명을 정리한 데 이어 이번에 7명을 추가로 내보내며 올해에만 총 12명을 방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김대우다.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의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문한 김대우는 2016년 3월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다. 이후 10시즌 동안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팀 투수진의 한 축을 맡아왔다.

1군 통산 386경기에 출전해 27승 26패 2세이브 29홀드 평균자책점 5.73을 기록했다.

올해 1군에서는 단 2경기 등판에 그치며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퓨처스(2군)리

그에서는 16경기 1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2.91로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좌완 투수 최성훈도 삼성과 결별한다.

2012년 LG 트윈스에서 데뷔한 그는 2023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2024시즌 1군 28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92를 기록했고, 올해는 1군 2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또 다른 좌완 투수 이상민도 팀을 떠난다.

그는 2013년 NC 다이노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넥센(키움)을 거쳐 2020년부터 삼성에서 뛰었다. 2024년에는 37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90을 작성한 뒤 올해는 1군에서 단 한 경기에만 나섰다.

/뉴시스

함평의 밤, 빛의 향연!

2025 함평 겨울빛축제

2025 Hampyeong Winter Light Festival

2025. 11. 28. (금) 16:00
2026. 1. 11. (일) -21:00

함평엑스포공원 및 읍 시가지 일원

함평군 함평축제관광재단